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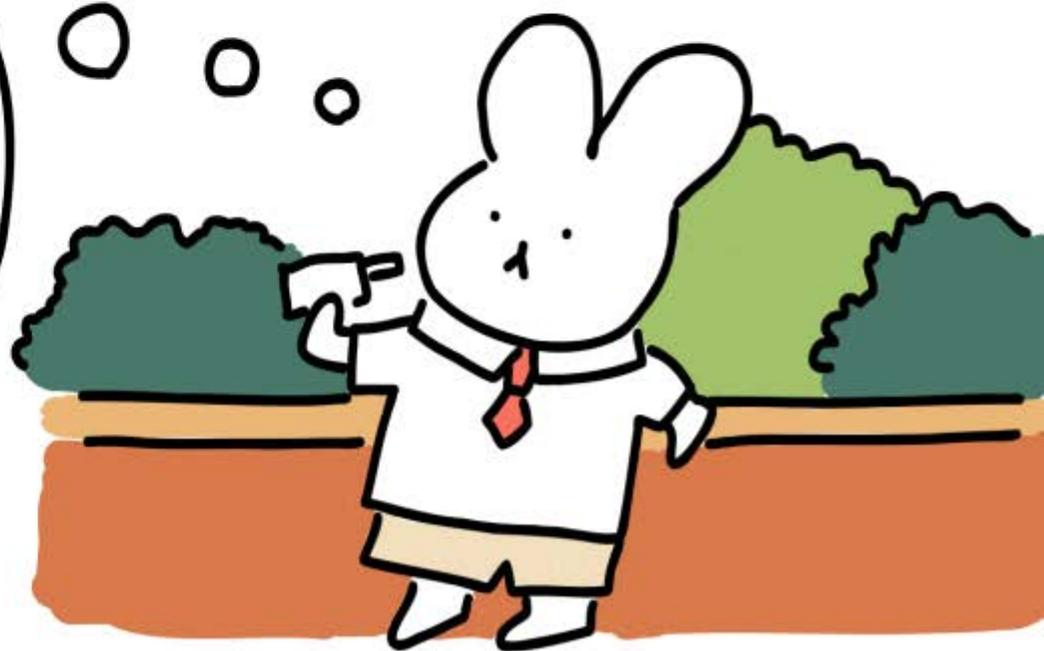


금연맨과  
함께하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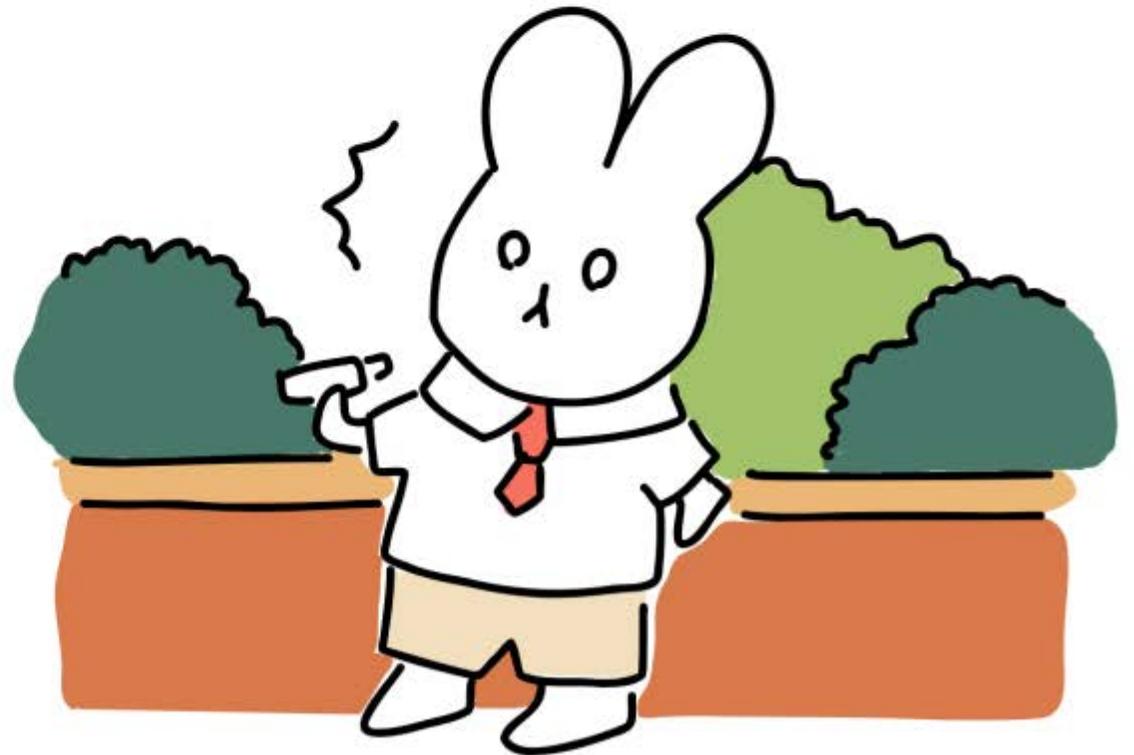
# 사람이 있는 곳은 금연!

제작: 김지우  
윤예준  
이유진

담배를 피우러 나왔는데  
마땅한 흡연구역이 없네...?  
그냥 적당한 곳에서  
피워야겠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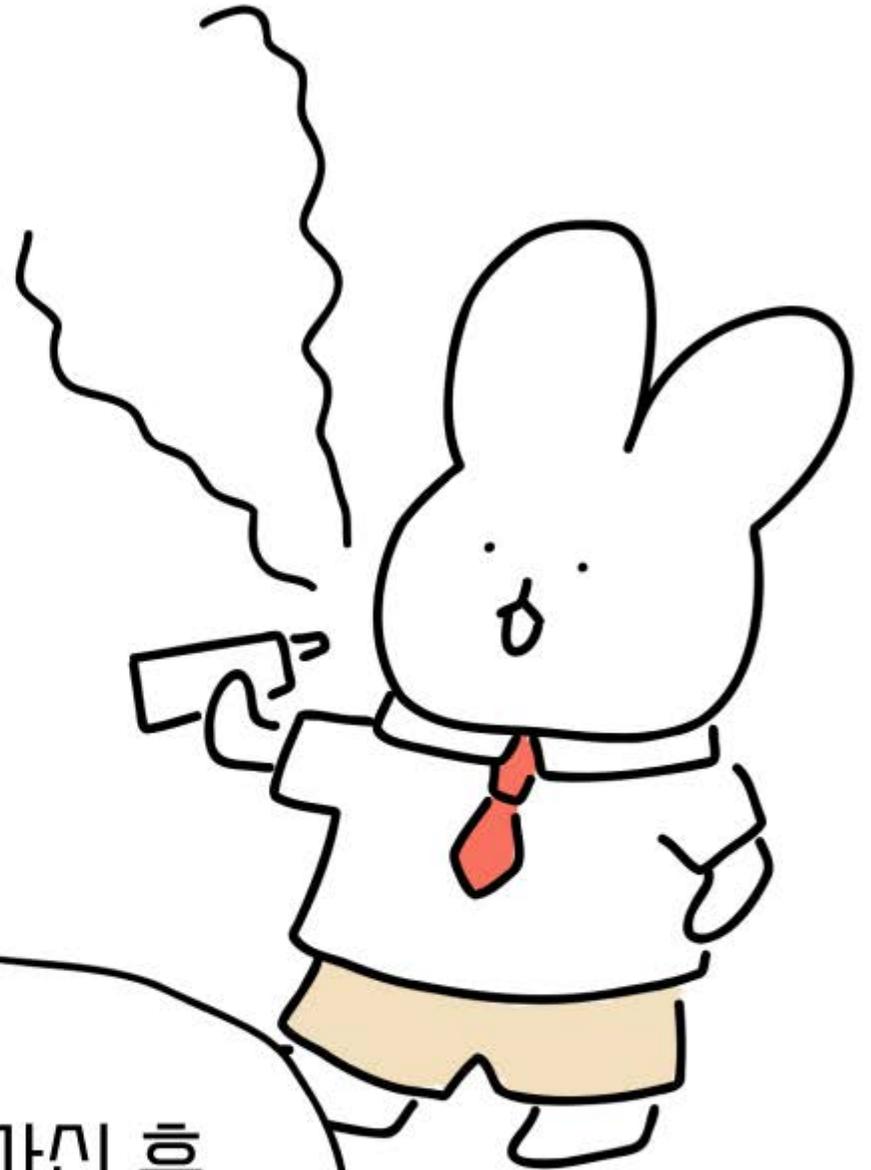
앗!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 
이런 공공장소에서  
담배를 피우면 안돼!



앗 그래도 난 연초가 아닌  
전자담배를 피우니까  
관찮지 않을까...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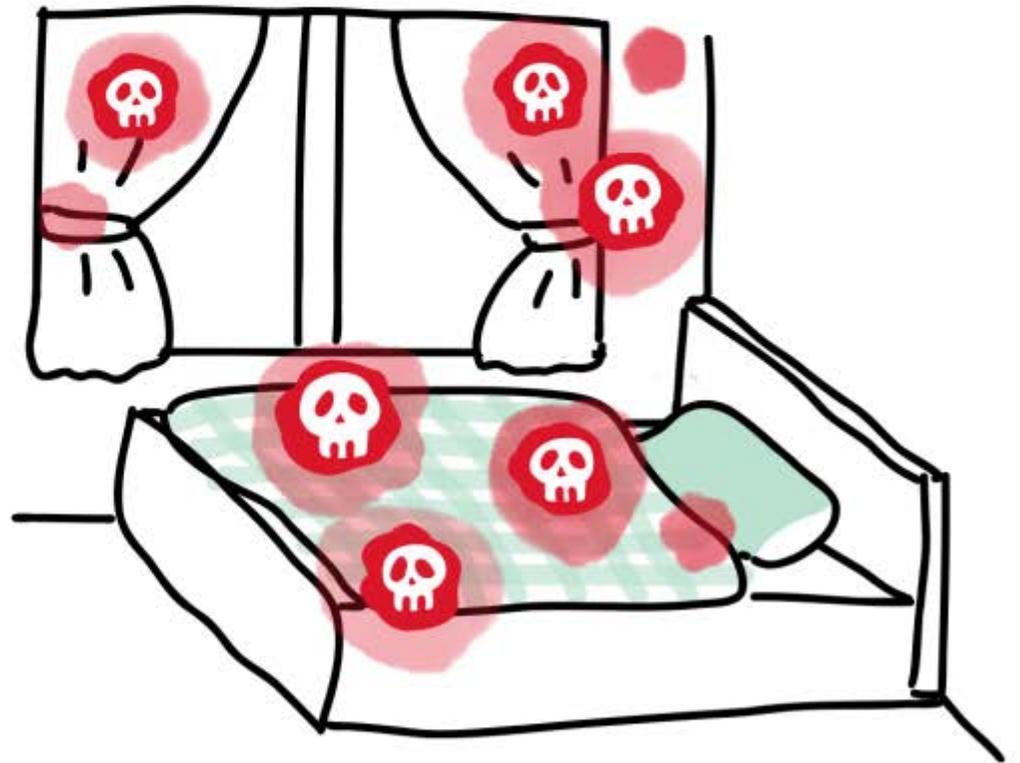
안돼안돼  
너 혹시 2차 흡연과  
3차 흡연에 대해  
알고있니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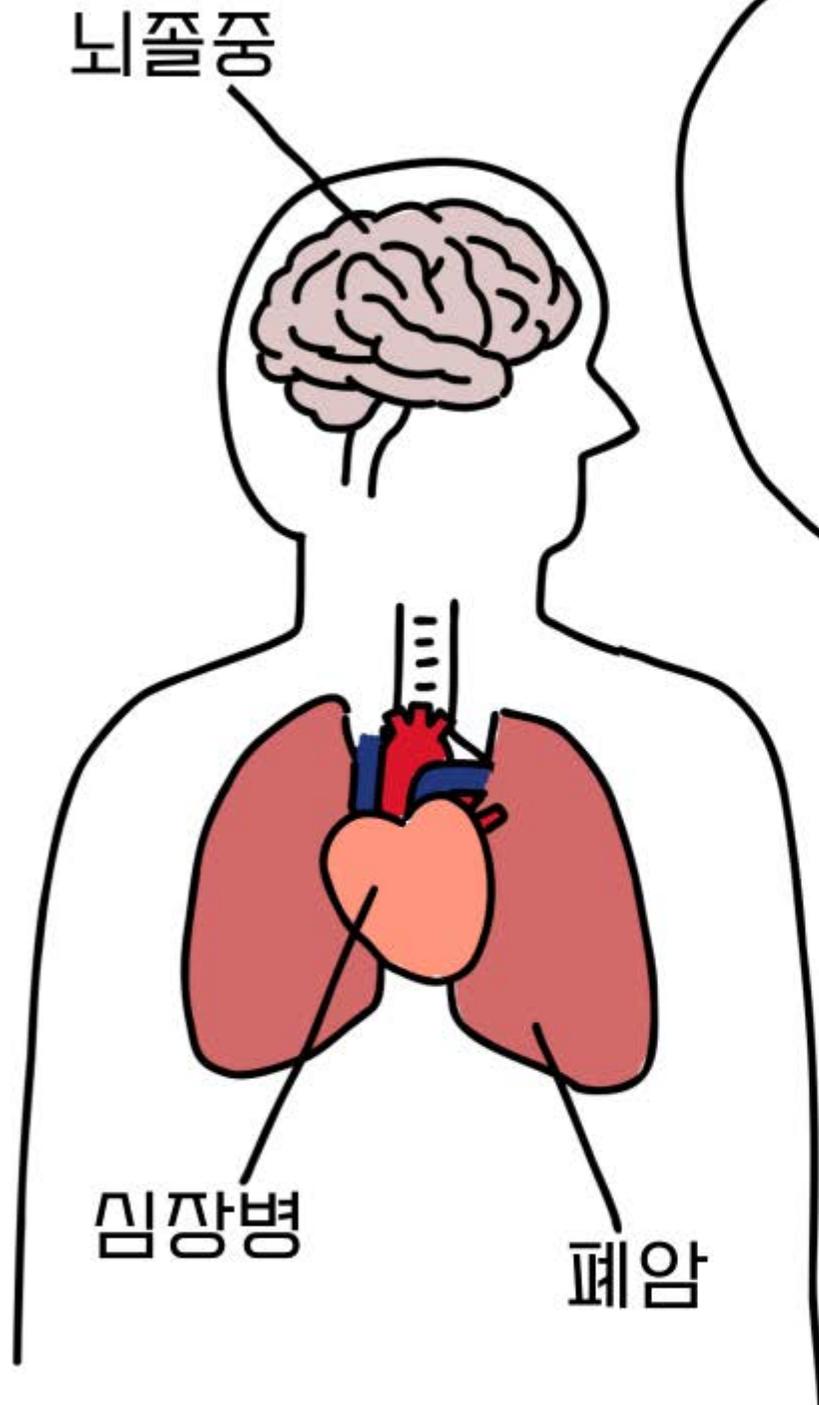


2차 흡연은 흡연자가 들이마신 후  
내뿜는 연기(주류연)와  
담배가 타면서 나오는 연기(부류연)에  
의한 간접흡연을 말하고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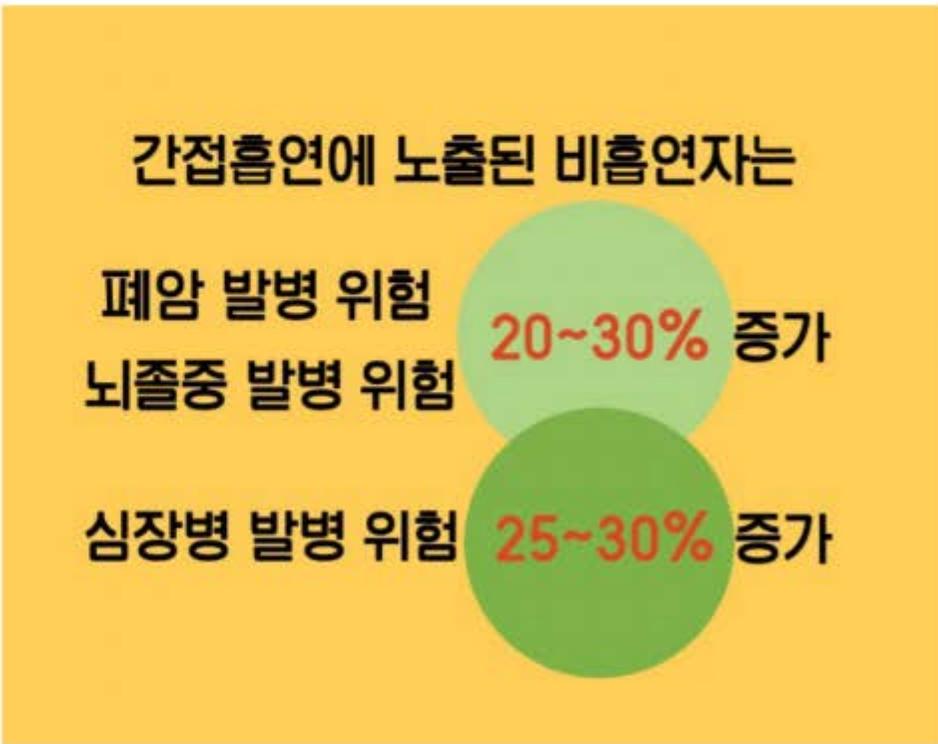


3차 흡연은  
몸, 옷, 가구, 벽 등에 남아 있는  
담배 부산물(독성물질)에 의한  
간접흡연을 말해





간접흡연은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해롭고, 심장병, 뇌졸중, 폐암 등 무서운 질병들의 발병 위험을 높여

또한, 전자담배에서 방출된 에어로졸에도  
니코틴, 발암물질, 독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 
천식, 뇌졸중, 심장질환, 당뇨병 등을 유발해  
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



포름알데히드

유독성 유기 화합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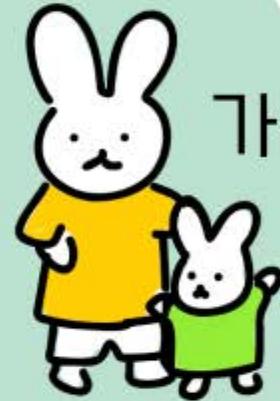
아세트알데히드



아 그렇구나...  
지금까지 내가 담배를 피울 때  
지나갔던 사람들이나  
내 가족과 동료들에게도  
미안해지네



지나갔던 사람



가족



동료



주변 사람들을 위해  
사람이 있는 곳은 금연! 꼭 지켜줘  
가장 좋은 방법은  
완전한 금연 실천이라는거,  
알지?



알았어 꼭 실천할게!  
고마워 금연맨!



사람이 있는 곳은 금연!  
공공장소에서서의 금연을  
꼭 실천해 주세요

참고문헌

한국건강증진개발원. (2022). 간접흡연, 안전지대는 없다. 담배규제정책 인포그래픽,  
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기획팀. (2021). 모든 담배에 노출되는 것은 위험하다!. 금연이슈&포럼, 80, 9-13.